

## 중학생의 공감과 또래관계 질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강유선\* · 박 경\*\*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의 차이와 공감이 정서표현성을 매개로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총 450명(남자 224명, 여자 226명)의 검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의 공감과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과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공감과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게 나타나 각 변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공감이 또래관계 질로 가는 경로와 정서표현성으로 가는 경로, 그리고 정서표현성이 또래관계 질로 가는 경로 모두 유의미 하였다.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서표현성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성과 또래관계 질이 높았으며,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청소년이 또래관계 질도 좋았다. 그러나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매개효과가 있었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학생에 한하여 공감이 정서표현성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중학생,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

\*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석사, 제1저자

\*\*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심리치료학과 교수, 교신저자, [kpark@swu.ac.kr](mailto:kpark@swu.ac.kr)

## I. 서 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변화와 함께 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 정체감을 확립하려 애쓰는 등의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와 발달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스러워하며 학업성취나 대인관계 문제에도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이전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또래로부터 얻는 지원과 인정이 매우 중요해진다. 또래관계가 잘 형성되고, 친구관계가 기능적일수록 대인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유능감은 높아지며,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통해 정서공유와 자아개념 확립 및 필요한 사회기술을 학습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러 영역에서 또래의 영향력이 인식되면서 지속적으로 또래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또래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민경, 2011; 최진현, 2011). 이는 또래관계의 양적인 증가가 긍정적 기능뿐 아니라 친구들에게 투자해야 하는 시간 및 갈등의 증가 등 부정적 기능도 함께 제공하며, 필요한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소수의 친밀한 관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이유이다.

또래관계가 질적으로 높다는 것은, 공통된 문제를 경험하는 또래집단이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정서적·사회적 지원을 받아 자기개념을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친밀한 관계양상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진현(2011)은 친구관계에서의 긍정적인 기능인 신뢰, 친밀감, 교제의 즐거움 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다. 이는 친구관계 질이 중학교의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Berndt(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또래관계가 빈약하면 외로움,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순, 1995; 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Woodward & Fergusson, 1999). 또래관계 질이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한현아(2007)의 연구나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우울, 불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윤희, 권석만과 서수균(2008)의 연구에서처럼, 청소년들이 원만하지 못하거나 이탈된 또래관계를 형성할 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또래는 많은 사회적 능력의 배양 및 심리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이며,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교사나 선후배 등 다른 관계에 비해 자기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더욱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또래관계는 이후 성인기의 대인관

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전 인생주기에 걸쳐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또래관계를 촉진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감’이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내적인 경험, 즉 주관적인 경험이나 심리상태를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며 의사소통하는 것(박성희, 2004; Rogers, 1975)으로 또래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돕는다. 공감은 여러 개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강조하는 요소들이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정서와 인지 두 차원이 포함된 복합적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이 외에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의사소통적 요소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 요인으로 살펴볼 것 가운데 하나인 인지적 요소는 타인의 역할이나 조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신경일, 1994). 타인의 언어뿐 아니라 표정,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이나 상황, 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능력 및 솔직한 감정과 그렇지 않은 감정을 구별하는 정서평가 능력이 향상된다(Mayer & Salovey, 1997). 또 다른 요인인 정서적 요소는, 타인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공감에 의한 정서반응을 의미한다(한종순, 2005). 즉,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감정을 자기감정처럼 대리 경험하는 것을 강조한다.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요소를 가진 공감이 또래관계를 촉진시켜 준다고 밝혔다. 이성진(2005)과 김민선(2007)은 공감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수용도가 높아지며, 박동화(2012)는 공감이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공감이 원만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감은 정서표현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Salovey, Brackett and Mayer(2004)는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표현성이 공감의 개발을 통해 더욱 발달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광수와 김해연(2009)은 공감이 정서인식 및 정서표현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공감은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인지하고, 당시의 정서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인지적, 정서적 과정을 거친 후, 언어적 혹은 행동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여기서 표현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뿐만 아니라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읽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읽어 낸 정서 및 그 정서와 관련한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충분히 정확하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정서표현력의 향상도 불러올 수 있다. 즉, 공감능력의 향상이 정서표현능력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공감과 함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서표현성을 들 수 있다. 정서표현성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성향으로, 우리나라에선 불과 몇 년 전까지 만해도 직접적인 정서표현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최근 정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에서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보다 표현하는 쪽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성을 긍정적인 대인관계 효과와 연결시켜, 표현적인 사람들은 사회성이나 대인관계 기술이 뛰어나고 긍정적 해결사고와 대처방안이 높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위축되거나 인간관계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하였다(이민영, 김광웅, 조유진, 2006). 이렇듯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공감과 더불어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높은 수준의 공감능력은 또래관계 형성 및 정서표현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서표현성은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공감과 정서표현성이 관련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감이 중학생의 또래관계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관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정서표현성의 구체적인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이해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감소시키는 과정을 돕는 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첫째,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둘째,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이 관련성이 있는지, 셋째, 공감이 정서표현성을 매개로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성에 따른 공감 및 또래관계의 기능과 정서표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여기나, 그 결과가 일괄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 성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또래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또래관계 질의 향상을 돕는 예방,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한 인간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공감

공감(empathy)이라는 용어가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된 것은 미학 심리학을 연구한 Lipps(1903)에 의해서였다. 그는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감상자의 내적인 모방에 의해 작품과 감상자 사이에 동일시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적상태가 작품과 동일한 정서상태를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후 Titchner(1909)가 Lipps의 공감(einfühlung) 개념을 빌려오면서 상담과 심리치료,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공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공감의 개념도 학자들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최근에는 공감을 상대방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인 인지적 측면을 강조(Feshbach, 1975; Mead, 1934; Rogers, 1959)하거나, 상대방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측면의 강조(Hoffman, 1982; Eisenberg & Miller, 1987)하거나 혹은 이해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적 측면을 강조(Carkhuff & Truax, 1967)하던 것이 차츰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공감의 개념을 정리하는데 있어 연구자의 입장에서 어느 요소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공감을 정의하고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두고 생각하고 느끼는 과정을 공감으로 보고, 그 핵심요인을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 하여 공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감의 인지적 요소란 공감적 정서나 행동을 이끌어내는 지적인 기제나 작용을 의미한다(박성희, 1994).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의 인지적 요소라고 동의하는 주요 개념에는 역할수용(role taking)이나 관점수용(perspective taking)을 들 수 있다(Davis, 1980, 1983; Feshbach, 1982; Hoffman, 1982; Rogers, 1975). Mead(1934)는 공감을 타인의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인 조망을 취해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개념으로 '감정의 재인'을 들 수 있다. 이는 Feshbach(1975)가 제안한 공감의 필수적인 선행 인지조건 가운데 하나로,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감정을 인지해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Borke(1971)가 공감을 보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식별하고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것도 이러한 재인식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공감의 인지적 특징을 부각시킨 사람의 하나로 Piaget를 빼놓을 수 없다. Piaget와 Inhelder(1969)는 공감능력의 발달은 아동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탈중심적인 사고로 전환되면서 발달한다고 보고, 7세 이후에 형성된다고 하였다.

Piaget나 앞서 언급한 Mead의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의 의도나 느낌을 정확하게 식별해 내는 것만으로는 공감이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식별이 성취되는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탈중심화 또는 역할수용하기가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김해연, 2009). 즉, 공감은 감정이나 동기를 인지해 내는 기능과 관련이 있는데, 이 기능은 자기중심적 입장에서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한 역할수용 또는 역할취하기를 통하여 습득되는 보다 타인지향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점들이 공감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보다 상호협력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타인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 즉 공감에 의한 정서반응을 의미한다(한종순, 2005). Lipps(1903)는 공감의 최종 결과를 공유된 느낌(shared feeling)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공유된 느낌을 발생시키는 기제를 인지적 능력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세, 몸짓, 표현 등을 신체가 모방함으로써 야기되는 구심적 송환(afferent feedback)에 두고 있다. 이것은 공감하는 사람을 느낌의 수납자로 파악하고 원래 대상자에서 공감자로 정서적 메시지가 전달된 결과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단, 공감자의 역할을 보다 능동적인 것으로 파악할 때 그가 전달받는 느낌은 원래 대상자가 느낀 것과 달라질 수 있다. 공감자는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느낌을 무시, 왜곡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증폭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박성희, 2004). Lipps와 견해를 같이 하는 학자들에게서 공감을 정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Hoffman(1982)은 공감을 자신의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였고, Barnett, Howard, Melton, Melton and Dino(1982)는 다른 사람의 정서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부합하는 정서의 대리적 경험이라고 하였다. 공감의 정서적 요소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반응이며, 그 정서 반응은 공감 대상자의 그것과 부합하는 것 또는 대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2. 또래관계 질

또래란 비슷한 수준의 연령, 성별, 학년에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비슷하며 사회적으로 동일시되어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들이 맺는 관계를 또래관계라 할 수 있다(Perry & Bussey, 1984).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은 사회적 지원과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서로에게 지지, 격려,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스스로 가치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준다. 더불어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의 기능을 갖고 있어 함께 놀이, 운동, 학습하면서 서로의 행동을 관찰, 모방해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서로에게 중요한 강화자가 되어 또래의 칭찬과 비난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이로써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 가게 된다(송명자, 1995). 또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공통적인 관심과 문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써 소속감을 제공하고, 가족을 벗어난 가치의 원천이 되며, 성인의 압력이나 간섭에 대항하는 힘을 주는 준거집단의 기능도 한다(홍주영, 도현심, 2002). 이처럼 또래관계는 청소년들에게 정체감과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사회성과 인지·행동 발달에 도움을 주며 개인의 자원 및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청소년기 이후 청년기와 성인기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모든 또래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빈약한 또래관계의 경험은 외로움,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를 일으켜 사회 부적응을 초래한다(이미순, 1995; Woodward & Fergusson, 1999). 또래에게 수용받지 못한 경험은 이후 비행, 범죄, 약물복용, 정신적인 불균형과 정신병리 등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Burleson, 1986; Woodward & Fergusson, 1999). 이처럼 또래관계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긍정적 기능뿐만 아니라 갈등이나 경쟁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다루어진다.

또래관계 질에 대해 Aboud와 Mendelson(1996)은 또래관계의 질적 측면으로 두 친구 간에 추구하고 제공하는 사회·정서적, 수단적 자원을 이야기하였으며, 김진경(2002)은 또래관계의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다루면서 또래관계 질을 또래관계에 대한 청소년 스스로의 지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또래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척도개발, 또래지위나 또래수용에 관한 연구(김성훈, 2000; 김춘희, 2002)가 많으며 대부분 또래관계의 양적인 측면이 부각 되어있다. 그 가운데 또래수

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러 연구에서 또래수용성이 높을수록 또래관계를 잘 맺는 경향이 있다고 한 반면, 몇몇 연구자들은 또래수용과 또래관계의 만족 정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Bukowski, Voivin & Hoza, 1994; Furman & Robbins, 1985). 그들은 또래수용도가 낮은 아동도 마음이 맞는 단짝 친구와 만족할 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Parker & Asher, 1993). 만일 또래수용도가 낮은 아동이 단짝 친구가 있다면, 또래 거절로 나타날 수 있는 외로움이나 학교 성적부진, 수업태만, 비행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예방되고 정서적 적응이 좀 더 쉽다는 것이다(윤미경, 1998).

이처럼 또래수용성은 또래관계의 양적 측면만을 조망할 뿐 또래관계의 복잡한 양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며, 청소년이 전반적으로 맺고 있는 또래관계의 질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까닭에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질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인터넷 게임이나 다문화 가정, 창의적 인성 등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민경, 2011; 전선환, 2012; Jiang hailan, 2013). 이 외에도 부모 양육이나 가정의 위험요인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김주연, 2009; 한현아, 2007)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과 정서적 발달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3. 정서표현성

정서(emotion)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심리적 기제로, 많은 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여러 학자들은 기분(mood), 정동(affect), 감정(feeling) 등의 용어와 동일하게 혹은 혼용되어 사용된 정서의 개념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시도들을 해왔으며, 최근 들어 여러 분야에서의 정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정서 개념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정서란 무엇인가?'에 대해 Carlson과 Hatfield(1992)는 정서가 내적 또는 외적 자극변인에 대해 인지적으로, 생리적으로, 행동적으로 반응하려는 유전적이거나 학습된 동기적 경향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즉, 정서란 자극에 대해 반응하게끔 하는 복합적인 인식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는 뚜렷한 얼굴표정, 신체자세, 몸의

움직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정서적인 사건 후 생리적 각성과 인지적 요소, 그리고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때문에 정서를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친밀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신이 느끼는 기분, 정서 및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자신의 내면과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심리적,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이주일, 민경환, 황석현, 한정원, 1997).

정서표현은 경험하는 정서의 외적인 표현을 말하며, 정서표현성은 비언어적·언어적 표현의 지속적이고 지배적인 패턴이나 스타일로 정의된다(Halberstadt, Cassidy, Shifter, Parke & Fox, 1995). 즉,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얼굴표정, 음성, 몸짓 등 다양한 형태로 정서를 표현하는 성향인 것이다.

정서표현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정서표현과 심리적, 신체적 건강 및 사회적 기능과의 관계를 다루어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표현적인 사람은 정서표현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감이 높고(Emmons & Colby, 1995), 부정적인 감정이 약화되어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 하였다(Lieberman et al., 2007). 또한 고민스러운 일이나 정신적 충격을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나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는 사람보다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덜 걸린다는 연구도 있다(Mendolia & Kleck, 1993). 이와 관련한 국내연구 가운데, 이경미(2000)는 자신의 감정, 정서를 억압하는 사람은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보다 암, 관상동맥성 질환 및 여러 신체적 질환에 걸릴 경향성이 높다고 하였다. 더불어 정서표현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서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인관계 내에서의 개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보고도 있다(장정주, 팽현기, 김정모, 2007). 정서표현적인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더 많이 받고(Depaulo, 1992), 눈에 잘 띄며(Sullins, 1989), 다른 사람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Riggio & Friedman, 1982). 정서표현성이 부부의 공감 및 친밀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박소희, 2007).

이처럼 정서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등의 심리적 적응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반면, 정서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기질적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안녕감이나 신체적 건강에 문제를 겪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한 개인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 4. 공감과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의 관계

##### 1) 공감과 또래관계 질의 관계

청소년들은 내면세계로 눈을 돌리면서 자의식이 강해지고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민감하므로 어른들과 또래의 지지가 없으면 몹시 불안해한다(연문희, 1985). 그러므로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공감하는 긍정적인 인간관계 경험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하겠다(박혜원, 2002). 박성희(1994)는 긍정적이고 상호적인 대인관계 없이 인간의 성장은 불가능하며, 효과적인 인간관계 기술인 공감은 본능적으로 알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청소년기의 공감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가운데서도, 최근에는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해연, 2009). 또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중학교 남학생의 사회적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안춘희, 2007).

대체적으로 많은 문화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더 잘 이해한다고 보고가 되었다. 또한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공감능력이 높다는 결과들이 밝혀졌다. 문화적으로 남자 청소년들에게는 정서를 통제할 것을 권하며, 적은 정서 반응과 낮은 수준의 공감반응을 보인다(Broidy, Cauffman, Espelage, Mazerolle & Piquero, 2003)는 보고도 있다. 이렇게 성차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김용희(2007)는 성의 고정관념으로 남성은 성취지향적인 면을, 여성은 관계지향적인 면을 지속적으로 장려 받아 왔고, 특히 여성은 어릴 때부터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쟁적이기 보다 조화를 격려 받아온 사회, 문화적 영향이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김상호(2003)는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공감을 표현하도록 양육되었기 때문에 성별이 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aron-Cohen(2004)은 여학생에게서 공감능력이 더 높게 나온 것이 사회, 문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남녀 생물학적 차이로 보았으며, 언어발달과 정서발달 측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진순, 2009). 그러나 남녀 간 공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연구도 있다(이세나, 1999; 홍화진, 1987). 공감의 하위요인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인 연구로, 인지적 공감은 여학생이, 정서적 공감은 남학생이 높게 나왔는데(박정선, 2000) 이처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공감 양상이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어 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감은 청소년의 학업태도나 또래관계, 문제행동 등과의 관련성도 유의미하게 보고되고 있다. Miller와 Eisenberg(1988)의 비행청소년과 공감과의 관계 연구에서 공감의 결핍이 사회·정서적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비행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공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공감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과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관계에서 또래가 차지하는 의미와 비율이 확연하게 커지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은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단순히 놀이친구를 필요로 하는 어린 아동과 달리 청소년기에는 서로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므로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린 아동들은 특별한 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 또래집단으로 간주하는 반면, 청소년은 친밀감, 신뢰감 같은 심리적 특성에 기반하여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김진경, 2002). 나이가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아감을 발전시키고, 정체감에 가치를 부여해주고 지지해주는 타인들을 선택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또래로부터의 수용과 인정을 통한 관계형성은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와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며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Gross & Siperstein, 1997; Woodward & Fergusson, 1999).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 연구에서 여학생의 또래관계가 남학생의 또래관계에 비해 더 원만하고 기능적인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래와 친밀한 관계에 몰두하고, 친구의 도움을 많이 구하며,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형성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 연구(전숙자, 2003)도 보고되고 있으니 그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또래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대립과 갈등, 처벌 같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 청소년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Cole &

Cole, 1993). Berndt(1989)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의 전환기에서 성공적 적응의 결정적 요소는 학교에서의 변화들을 견딜 수 있는 친구관계가 있느냐 임을 알아내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공감의 긍정적 또래관계를 포함하는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해 왔다. 연구에 따르면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반면, 공격적인 행동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ndlay, Girardi and Coplan(2006)은 공감수준이 높은 아동들이 공격적인 행동이나 사회적 위축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행동을 더 잘 이해한다고 하였다. 공감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켜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감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촉진작용을 하며 갈등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지적·정서적 공감능력과 또래수용도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이성진, 2005)나 공감이 이타행동과 유사하게 생각되어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박성희, 2004)들도 보고된다. 김민선(2007)의 연구에서는 공감이 또래수용도 및 친구관계와 정적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친구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공감의 요소를 나누어 연구한 박지수(2010)는 정서적 공감능력이 인지적 공감능력에 비해 교우관계와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공감은 또래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2) 공감과 정서표현성의 관계

친밀하고 긍정적인 정서표현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시키고 돕는데 도움을 준다. 먼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것이 공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양근원(2004)은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알고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을 인지적 복잡성이라 하고, 그 정서를 민감하게 표현하는 또 다른 인지 능력을 정서적 복잡성이라고 정의한 뒤, 공감이 인지적, 정서적 과정을 거친 후 언어적 또는 행동적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공감을 표현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써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슬프고, 외롭고, 속상한 부정적 경험에 대한 것이더라도 그 속에는 더 잘하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성장욕구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표현할 때는 그 속에 숨은 성장욕구까지 파악하여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서와 관련된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표현하는 정서표현능력의 향상을 불러온다. 이는 자신이 내적으로 경험한 공감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으므로 정서에 대한 표현능력이 향상된다고 한 연구(이정아, 2012)와 맥락을 같이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공감이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해연, 2009), 공감전달이 정서표현 갈등을 감소시켜 준다며 정서표현능력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 연구(정수경, 2000)도 있다. 또한 정서공감이 정서체험과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고(이찬중, 허재홍, 2011), 공감이 분노 수준을 낮추고 분노표현 양식을 비폭력적인 형태로 바꾸어준다고 하여, 공감이 정서표현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분노표현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김정남, 2005; 홍선아, 2008). 이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공감의 향상이 정서표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 3) 정서표현성과 또래관계 질의 관계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또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의 적응적인 면은 정서표현성과 상관이 높다.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타인의 지각과 관련되는데, 또래와의 성공적인 관계를 갖는 청소년들은 언제 어떻게 정서를 표현하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정서적 특징은 집단 내에서 높은 또래지위를 차지하게 하고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Sroufe, Schork, Motti, Lawroski & LaFrenire, 1984).

여러 학자들도 표현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정서표현성을 긍정적인 대인적 효과와 연결시켰다(Friedman & Riggio, 1981). 이는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또래에

의해 더 많이 수용되고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임연진, 2002; 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 Hubbard & Coie, 1994)와도 일치한다. 김화연(2012)도 정서표현을 통한 정서의 공유는 대인관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개념을 확고하게 해주고,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한다고 하였다. 반면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습관적으로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학생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거리감이나 감정적인 소외를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Gottman & Levenson, 1998). 또한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또래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여(Banninger-Huber, 1992)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정원(1997)도 개인이 긍정적인 정서나 친밀감을 잘 표현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 획득이나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부정적 정서를 잘 표현하는 것은 정서적 지지를 얻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하며 정서표현성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아동은 또래상호작용이 원만하지 못하고(Arsenio & Killen, 1996), 특히 화를 잘 내는 아동은 공격적이며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였다(Arsenio, Cooperman & Lover, 2000)고 보고된다. 또한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적응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서표현성이 포함된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정종진, 1996)도 있다. 즉, 부정적 정서를 잘 표현하는 것이 또래의 정서적 지지를 얻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고, 이것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투르고, 자신의 요구를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표현하지 못하여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부정적 감정표현이 또래관계 문제를 야기한다는 앞선 연구들과 달리, 실제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우선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김정규, 1995)는 보고도 있다. 이것은 자신의 정서가 부정적이라고 하여 스트레스를 받거나 표현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 갈등이 깊어지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표현하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 관계를 유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건아, 2008). 즉,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이 느낀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 4) 공감과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 중 공감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공감은 정서표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미현(2003)은 공감이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성향을 높여주고 대인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성향을 낮춘다고 하였고, 안춘희(2007)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공감능력이 교우관계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다(박동화, 2012; 박지수, 2010)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Knapp(1984)은 공감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즉, 공감이 충실하고 정확하게 일어날수록 상대방에 대한 지각이 그만큼 정확해지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수월해 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연구를 통해 공감이 또래관계 질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이라는 점이 밝혀졌으나, 공감이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이에 공감과 또래관계 질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감과 또래관계 질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정서표현성을 주목하게 되었다. 정서표현성은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Friedman과 Riggio(1981)는 정서표현성을 긍정적인 대인적 효과와 연결시켜 그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할수록 또래들에게 더 많이 수용되고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연구를 통해 공감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공감이 중학생의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성이 매개효과를 가지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주는 공감과 정서표현성을 설명하는데 설득력 있는 예측방향을 제공하려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학생의 공감 및 또래관계 질과 정서표현성에 관한 연구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경기지역에 소재한 2개교의 중학생(N=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가운데 538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 응답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450부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의 전체 남녀의 비율은 남학생이 224명, 여학생이 226명, 1학년 124명(남 65명, 여 59명), 3학년 326명(남 159명, 여 167명)이다.

중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이 시기의 아이들이 또래관계 및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며, 둘째, 자기보고식 질문지 조사법에 대한 이해도를 감안한 것이다. 즉, Piaget 발달 단계의 형식적 조작기에 속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고 정서에 대한 이해 및 가설설정,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므로 자기보고식 조사법이 가능하다고 여겼다. 단, 연구대상에서 2학년이 제외된 부분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이후에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 2. 연구도구

##### 1) 공감의 정서적 요인

Bryant(1982)의 정서공감척도(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ECA)와 연진영(1987)이 제작한 척도를 송기종(1998)이 요인분석하여 수정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3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슬픔, 심적부담, 기쁨, 불안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나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의 정서적 능력이 큼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0$  이었다.

## 2) 공감의 인지적 요인

Davis(1980)가 개발한 성인용 대인관계 반응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김성은(1997)이 중학생용으로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 서는 '조망취하기', 영화, 소설 등 가상의 상황 속 인물이 되어보는 '상상하기', 타인에게 온정, 자비, 관심 등을 느끼는 '공감적 관심', 타인의 고통스런 상황을 보고 두려움, 공포 등을 느끼는 '개인적 고통' 척도로 나누어진다. 정서적 공감 측정에 Bryant(1982)와 연진영(1987)이 제작한 도구를 수정한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선행연구(이성진, 2005)에 따라 인지적 공감은 '조망취하기'와 '상상하기' 문항만을 활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의 인지적 능력이 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5$  이었다.

## 3) 또래관계 질

또래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김진경과 유안진(2002)이 Furman과 Buhrmester(1985)의 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NRI) 가운데 또래와의 관계에서 주로 보이는 특성만을 추출하여 이를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의, 상호친밀·공감대, 정서적·사회적 지지, 갈등의 해결, 인기, 또래관계 만족도를 포함하는 20문항의 긍정적 요인과 갈등·대립, 일방적 주도, 철회·고립, 무시, 또래관계 불만족을 포함하는 20문항의 부정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0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또래관계의 역동적인 양상과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08$  이었다.

## 4) 정서표현성

청소년의 실제 표현행동에 초점을 두고 정서를 표현하는 성향을 측정하고자 King과 Emmons(1990)가 제작하고 하정 등(1997)이 번안한 정서표현 검사(The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EEQ)를 사용하였다. EEQ는 총 16문항으로 7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하정(1997)은 하위요인을 친밀한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적 정서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71$  이었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성별, 학년)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h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들 간에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하였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각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매개효과는 세 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감소하며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개변수가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하고,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의미할 경우에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1982)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연구문제 1. 중학생의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중학생의 정서적·인지적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남녀 학생의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 t-검증

구 분	남(n=224)		여(n=226)		t	p
	M	SD	M	SD		
정서공감	2.18	.28	2.45	.25	-11.019***	.000
인지공감	3.40	.60	3.76	.49	-6.998***	.000
또래관계질	3.04	.32	3.17	.30	-4.493***	.000
정서표현성	4.13	.74	4.38	.73	-3.668***	.000

\*\*\* $p < .001$

연구문제 2. 중학생의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은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 1) 중학생의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공감과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학생의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 간의 상관은 .303에서 .598로 모든 요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 < .01$ ). 더불어 성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도 공감과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 간의 관계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즉,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 질과 정서표현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의 상관관계

구 분	1.정서공감	2.인지공감	3.또래관계질	4.정서표현성	
전체	1	1			
	2	.598**	1		
	3	.424**	.303**	1	
	4	.346**	.368**	.351**	1
	M	2.32	3.58	4.25	3.11
	SD	.30	.57	.75	.32
	남	1	1		
2		.593**	1		
3		.310**	.248**	1	
4		.358**	.348**	.424**	1
M		2.18	3.40	4.13	3.04
SD		.28	.60	.74	.32
여		1	1		
	2	.464**	1		
	3	.458**	.267**	1	
	4	.245**	.324**	.223**	1
	M	2.45	3.76	4.38	3.17
	SD	.25	.49	.73	.30

\*\* $p < .01$

## 2) 중학생의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인 공감이 종속변인인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적 공감( $\beta=.424, p<.001$ )과 인지적 공감( $\beta=.303, p<.001$ ) 모두 또래관계 질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p	R <sup>2</sup>	F
또래관계 질	정서공감	.424***	9.903	.000	.180	98.065***
	인지공감	.303***	6.724	.000	.092	45.208***

\*\*\* $p<.001$

## 3) 중학생의 공감이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인 공감이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적 공감( $\beta=.346, p<.001$ )과 인지적 공감( $\beta=.368, p<.001$ )이 정서표현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공감이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p	R <sup>2</sup>	F
정서표현성	정서공감	.346***	7.795	.000	.119	60.769***
	인지공감	.368***	8.374	.000	.135	70.131***

\*\*\* $p<.001$

#### 4) 중학생의 정서표현성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성이 종속변인인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표현성( $\beta=.149$ ,  $p<.001$ )은 또래관계 질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표현성이 또래관계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정서표현성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p	R <sup>2</sup>	F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	.149***	7.921	.000	.123	62.748***

\*\*\* $p<.001$

연구문제 3. 중학생의 공감이 정서표현성을 매개로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 표 7, 표 8과 같다.

표 6에서 정서적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정서적 공감( $\beta=.346$ ,  $p<.001$ )이 매개변수인 정서표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도 독립변수인 정서적 공감( $\beta=.424$ ,  $p<.001$ )이 종속변수인 또래관계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성이 또래관계 질( $\beta=.232$ ,  $p<.001$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면서, 정서적 공감이 또래관계 질( $\beta=.344$ ,  $p<.001$ )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에서보다 줄어들어 정서표현성은 정서적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bel Test를 통해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z=4.363$ ,  $p<.001$ ).

다음으로 인지적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 인지적 공감( $\beta=.368, p<.001$ )이 정서표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도 인지적 공감( $\beta=.303, p<.001$ )이 또래관계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성이 또래관계 질( $\beta=.277, p<.001$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면서, 인지적 공감이 또래관계 질( $\beta=.201, p<.001$ )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에서보다 줄어들어 정서표현성은 인지적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bel Test를 통해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z=4.822, p<.001$ ).

표 6

중학생의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공감	단계	변수	$\beta$	t	p	Adj.R <sup>2</sup> ( $\Delta R^2$ )	F ( $\Delta F$ )
정서 공감	1단계 독립→매개	정서공감→정서표현성	.346***	7.795	.000	.119	60.769***
	2단계 독립→중속	정서공감→또래관계질	.424***	9.903	.000	.180	98.065***
	3단계 독립+매개→ 중속	정서공감 +정서표현성 →또래관계질	.344*** .232***	7.755 5.229	.000 .000	.227 (.047)	65.584*** (27.338***)
인지 공감	1단계 독립→매개	인지공감→정서표현성	.368***	8.374	.000	.135	70.131***
	2단계 독립→중속	인지공감→또래관계질	.303***	6.724	.000	.092	45.208***
	3단계 독립+매개→ 중속	인지공감 +정서표현성 →또래관계질	.201*** .277***	4.306 5.924	.000 .000	.158 (.066)	41.874*** (35.099***)

\*\*\* $p<.001$

성별을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먼저, 표 7에서 남학생의 정서적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 정서적 공감( $\beta=.358, p<.001$ )이 정서표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도 정서적 공감( $\beta=.310, p<.001$ )이

또래관계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 정서표현성이 또래관계 질( $\beta=.359, p<.001$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면서, 정서적 공감도 또래관계 질( $\beta=.181, p<.01$ )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에서보다 줄어들어 정서표현성은 정서적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bel Test를 통해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z=4.025, p<.001$ ).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인지적 공감인 경우, 인지적 공감( $\beta=.348, p<.001$ )이 정서표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도 인지적 공감( $\beta=.248, p<.001$ )이 또래관계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성이 또래관계 질( $\beta=.384, p<.001$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면서, 인지적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아 정서표현성은 인지적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bel Test를 통해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z=4.019, p<.001$ ).

표 7

남학생의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공감	단계	변수	$\beta$	t	p	Adj.R <sup>2</sup> ( $\Delta R^2$ )	F ( $\Delta F$ )
정서 공감	1단계 독립→매개	정서공감→정서표현성	.358***	5.721	.000	.128	32.726***
	2단계 독립→종속	정서공감→또래관계질	.310***	4.855	.000	.092	23.568***
	3단계 독립+매개→ 종속	정서공감 +정서표현성 →또래관계질	.181** .359***	2.824 5.603	.005 .000	.201 (.112)	29.095*** (31.396***)
인지 공감	1단계 독립→매개	인지공감→정서표현성	.348***	5.524	.000	.121	30.515***
	2단계 독립→종속	인지공감→또래관계질	.248***	3.817	.000	.062	14.569***
	3단계 독립+매개→ 종속	인지공감 +정서표현성 →또래관계질	.115 .384***	1.776 5.957	.077 .000	.191 (.130)	26.156*** (35.481***)

\*\* $p<.01$ , \*\*\* $p<.001$

표 8의 여학생의 정서적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 정서적 공감( $\beta=.245, p<.001$ )이 정서표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도 정서적 공감( $\beta=.458, p<.001$ )이 또래관계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 정서표현성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아 여학생의 정서적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인지적 공감인 경우, 인지적 공감( $\beta=.324, p<.001$ )이 정서표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도 인지적 공감( $\beta=.267, p<.001$ )이 또래관계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 정서표현성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아 여학생의 인지적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여학생의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공감	단계	변수	$\beta$	t	p	Adj.R <sup>2</sup> ( $\Delta R^2$ )	F ( $\Delta F$ )
정서 공감	1단계 독립→매개	정서공감→정서표현성	.245***	3.784	.000	.060	14.316***
	2단계 독립→종속	정서공감→또래관계질	.458***	7.715	.000	.210	59.523***
	3단계 독립+매개→ 종속	정서공감 +정서표현성 →또래관계질	.429*** .118	7.050 1.940	.000 .054	.223 (.013)	32.012*** (3.765)
인지 공감	1단계 독립→매개	인지공감→정서표현성	.324***	5.134	.000	.105	26.362***
	2단계 독립→종속	인지공감→또래관계질	.267***	4.152	.000	.071	17.237***
	3단계 독립+매개→ 종속	인지공감 +정서표현성 →또래관계질	.218** .153	3.229 2.264	.001 .025	.092 (.021)	11.339*** (5.124)

\* $p<.01$ , \*\*\* $p<.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을 돕고자,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감과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의 관련성과 공감과 또래관계 질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 역할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더불어 공감을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복합체로 보는 입장에 입각하여 연구하였고, Baron과 Kenny(1986)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의 성차는 여아가 남아보다 공감 수준이 높다는 여러 연구들(박성희, 1997; 송기중, 1998; 홍기묵, 2004)과 자기보고식 공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밝힌 연구(정명실, 2003; Eiesberg & Fabes, 1998)와 일치한다. 정서표현성의 성차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온 다른 연구(강미란, 2010; 송지윤, 2010)들과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표현을 더 잘 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개인차에 따른 예외를 감안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성장과정이 다르고,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이 대부분의 문화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성은 성취지향적인 면을, 여성은 관계지향적인 면을 지속적으로 장려 받으며, 여성은 어릴 때부터 타인의 입장을 더 고려하도록 미묘하게 압력 받아 왔을 수 있다(김용희, 2007). 이에 성별에 따른 공감과 정서표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래관계 질의 성별 차이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또래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하며, 관계지향적인 동시에 언어적 교류를 더 많이 한다(김정윤, 2000)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시사된다.

둘째, 중학생의 공감과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감이 또래관계 질로 가는 경로와 정서표현성으로 가는 경로, 정서표현성이 또래관계 질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 하였다.

각각 살펴보면, 공감과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는, 공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미현(2003)의 연구에서도 공감이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성

향을 높여주고, 대인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성향을 낮춰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또래집단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아동들은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후 대인관계에서도 위축되어 그로인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한다는 연구도 있다(전수천, 2000). 이를 통해 공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 질이 좋으며, 이후 성인기에도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란 추측을 할 수 있다.

공감과 정서표현성의 관계에서는 공감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감이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해연, 2009)와 일치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고 정서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즉, 공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식적인 노력은 분명 공감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양근원(2004)의 주장을 지지한다.

정서표현성과 또래관계 질 사이에서는 정서표현성이 또래관계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를 강하게 많이 표현하는 것이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와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정서표현성이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한정원(1997)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대인간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잘 한다는 권진희(2007) 연구와도 같다. 결국, 자신의 욕구나 느낌, 생각을 잘 나타내는 능력은 관계를 잘 맺게 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정서표현성이 좋은 학생일수록 또래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인식된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공감은 정서표현성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수준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성이 높았으며,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또래관계 질도 좋았다. 김해연(2009)은 공감이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성진(2005)은 공감이 정서적, 인지적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경험을 대리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라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이 정서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할수록 또래 간 문제 상황에서 긍정적인 해결을 하고, 개인의 사회생활과 관계형성 및 유지를 잘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김선주, 2002). 즉, 공감이 정서인식 및 표현능

력 향상에 영향을 주고,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 표현하는 능력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Salovey, Brackett & Mayer, 200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서공감이 정서체험과 정서표현에 영향을 주고, 정서공감이 정서표현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이찬중, 허재홍, 2011).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성을 매개로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그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매개효과가 있었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중학생의 공감이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줄 때, 남학생에 한하여 공감을 할수록, 그리고 정서표현성을 매개할 때 또래관계 질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개인의 정서표현성이 타고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을 때(신자은, 2002) 남학생의 경우, 자신의 감정과 정서의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지지되어 온 문화 속에서 자신의 표현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또래와 소통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비밀과 정서를 공유하며 자기를 개방한 학생들, 즉, 여성적 성향을 더 드러내 보이는 남학생들의 또래관계 질이 보다 긍정적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자신의 감정과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 지지되어 왔고, 그러한 요인들은 이미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감과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의 정도가 각각 높고, 독립변인인 공감에서 종속변인인 또래관계 질로 가는 경로의 상관 또한 높은 상태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를 보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여학생의 경우, 공감이나 정서표현성의 정도가 낮거나, 또래관계 질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면 그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과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변인으로 정서표현성을 살펴보았다. 다른 사람의 관점과 감정을 수용하고 정서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인 공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식적인 노력은 분명 공감을 표현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신의 욕구나 느낌, 생각 등을 잘 나타내는 능력은 관계를 잘 맺게 하고, 상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함으로 정서표현성이 좋은 학생일수록 또래관계 질이 좋을 것임을 시사한다. 즉, 공감이 정서표현능력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고,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표현하는 능력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래관계 질이 공감 및 정서표현성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 또래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교사와 치료자들이 중학생에게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생 남학생의 경우, 공감이 정서표현성을 매개로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남학생들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맺기 위한 개입방법에 있어 고려해야 할 개인의 내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시사해 준다. 즉,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억제하면서 긍정적인 또래관계 질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정서표현을 격려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대처방식을 권장하여 보다 적응적인 관계를 도울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공감과 정서표현성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주로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과 부모의 관계 내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또래의 의미와 비중이 커지고, 그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공감과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또래관계 질과 관련된 변인으로 연구하였다. 이로써 공감과 정서표현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의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 지역의 일부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 적용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 중·고등학교의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지역별, 학년별로 그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감, 또래관계 질, 정서표현성 검사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므로 집단에게 실시할 경우 유리하지만,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검사뿐만 아니라 면접, 관찰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감과 정서표현성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 변인과 개인적 특성들이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줄 것을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도모하며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예방하고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을 연구하여 남녀 청소년 모두의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감과 정서표현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아직 시작점에 있어 선행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연구와 비교, 검증하기가 어렵다. 후속 연구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간다면,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적응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또래관계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이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학업수행의 어려움 등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교정적, 치료적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주는 공감 및 정서표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방, 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교육현장에서 적용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미란 (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서표현, 또래관계 및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진희 (2007).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수, 김해연 (2009).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2(4), 275-300.
- 김미현 (2003). **공감과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경 (2011). **초등학교의 창의적 인성이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선 (2007).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감이 또래수용도 및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상호 (2003). **감정공명과 유관변인의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8, 1-25.
- 김선주 (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대인간 문제해결능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훈 (2000). **청소년의 또래수용유형과 촉진적 의사소통능력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용희 (2007). **공감능력과 관련된 성격특성 및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3), 573-585.
- 김윤희, 권석만, 서수균 (2008). **ADHD 성향 청소년을 위한 학업적 자기관리기술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77-602.
- 김정규 (1995). **게슈탈트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김정남 (2005). **자기 및 타인 표상, 공감이 분노수준과 분노표현 양식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윤 (2000). **아동의 친구관계 질과 학교에 대한 태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주연 (2009). **부모의 양육행동, 또래관계의 질 및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영 (2007). **정서표현성, 자기은폐, 인지적 정서조절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경 (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기의 의사소통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순 (2009).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실천지능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춘희 (2002). **또래수용도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해연 (2009). **공감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화연 (2012). **청소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혜신 (2001). **또래의 괴롭힘이 청소년기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건아 (2008). **청소년의 정서표현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자기조절능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동화 (2012). **아동의 공감능력과 또래관계에서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희 (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성희 (1994). **공감의 특성과 이타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희 (1997).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서울: 문음사.
- 박성희 (1998). **친사회 행동의 형성기제와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2(2), 29-45.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 박소희 (2007). **기혼여성의 여가활용특성과 정서표현성, 부부공감, 친밀감 및 여가공유 의사의 관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선 (2000). **친사회적 초등학생의 대상표상과 공감능력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수 (2010).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공감능력과 교우관계 및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원 (2002). **공감훈련이 여중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기종 (1998). **아동의 공감수준과 친사회적 도덕추론능력의 관련성**.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지윤 (2010).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정서표현성, 사회적지지 및 신체증상경험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경일 (1994).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연구보**, 29, 1-37.
- 신지은 (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완벽주의 및 정서표현성향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경원 (2007). **낙관성이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성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춘희 (2007).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남중학생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근원 (2004). **인지 및 정서 복잡성과 공감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연문희 (1985). **청소년들 발달과업 성취를 위한 상담연구방법**. **교육발달논집**, 7(1), 174-193.
- 오영미 (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원정 (1999). **친구관계의 질 및 친구관계망과 아동의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미경 (1998).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미 (2000). **정서억압이 정서반응과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순 (1995).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민영, 김광웅, 조유진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행동 통제특성과 정서지능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아동학회지: 건강**, 27(6), 149-165.
- 이보미 (2011).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 및 자아탄력성과 정서지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진 (2005). **학령기 아동의 공감능력과 또래수용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세나 (1999). **유아를 위한 친사회적 프로그램이 유아의 우정개념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아 (2012). **행태치료에 근거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감능력과 정서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이찬중, 허재홍 (2011). 공감, 정서 그리고 행복의 관계. **호남문화연구**, 49, 187-214.
- 임연진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임정 (2005). **공감중심의 집단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정주, 팽현기, 김정모 (2007). 정서적 지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 관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상담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08-309.
- 전선환 (2012). **초등학교 아동의 컴퓨터 게임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수천 (2000). **정신지체아의 또래수용도와 감정조망 수용능력과의 관계 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숙자 (2003). **일반 중학생과 왕따들의 특성 비교 연구: 자아개념 및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명실 (2003). **아동의 공감수준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수경 (2000). **공감전달이 정서표현감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종진 (1996). 정서지능(EQ)란 무엇인가. *교육개발*, 104, 102-103.
- 최진현 (2011). **아동의 놀이성과 친구관계 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5).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구조와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239-257.
- 한정원 (1997). **정서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종순 (2005).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현아 (2007). **가정의 위험요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기묵 (2004).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선아 (2008).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분노와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주영, 도현심 (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홍화진 (1987). **아동의 공감발달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Jiang hailan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과 개인, 가족, 학교요인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boud, F. E., & Mendelson, M. J. (1996). Determinants of friendship selection and quality: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M. Bukowski, A. F. Newcomb, & W. H.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senio, W. F., Cooperman, S., & Lover, A. (2000). Affective predictors of preschoolers' aggression and peer accept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6, 438-448.
- Arsenio, W., & Killen, M. (1996). Preschoolers' conflict-related emotions during peer dispute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7, 43-57.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ron-Cohen, S. (2004). *The essential difference: The truth about the male and female Brain*, Perseus. New York: Basic Books.
- Baron, R. M.,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nninger-Huber, E. (1992). Prototypical affective micro-sequences in psychotherapeutic interaction. *Psycho-therapy Research, 2*, 291-306.
- Berndt, T. J. (1989). Obtaining support from friend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D. Belle (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pp.308-331). New York: Wiley.
- Berndt, T. J. (1999). Friends' influence on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15-28.
- Barnett, M. A., Howard, J. A., Melton, E. M., & Dino, G. A. (1982). Effect of inducing sadness about self or other on helping behavior in high and low empathic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920-923.
- Broidy, L., Cauffman, E., Espelage, D., Mazerolle, P., & Piquero, A. (2003).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its relation to juvenile offending. *Violence and Victims, 18*, 503-516.
- Borke, H. (197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gocentrism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5*(2), 263-269.
- Bukowski, W. M., Boivin, M., & Hoza, B. (1994).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during pre-and early adolescence: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friendship qualities sca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3), 471-484.
- Burleson, J. C. (1986). Method apparatus for disposal of a broad spectrum of waste featuring oxidation of waste. *US Patent, 4*, 564-458.
- Carkhuff, R. R., & Truax, C. B.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 psychotherapy*. Chicago: Aldine.
- Carlson, J. G., & Hatfield, E. (1992). *Psychology of emo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ole, M., & Cole, S. (1993). *The development of children* (2nd ed). New York: W. H. Freeman & company.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 DePaulo, B. M. (1992). Nonverbal behavior and self-presen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2), 203-243.
- Eisenberg, N., & Fabes, R. A. (1998) Prosocial development: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In W. Damon, & N. Eisenberg (Eds.),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 Eisenberg, N., & Lennon, R. (1983).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capacities. *Psychological Bulletin, 94*, 100-131.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Empathy, sympathy, and altruism: Empirical and conceptual links.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292-316).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 Miller, P. A.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3), 324-344.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959.
- Feshbach, N. D. (1975). Empathy in children: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Counseling Psychologist, 5*, 25-30.

- Feshbach, N. D. (1982).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social behavior in children.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pp.315-338). New York: Academic Press.
- Findlay, L. C., Girardi, A., & Coplan, R. J. (2006). Links between empathy, social behavior, and social understanding in early childhoo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 347-359.
- Friedman, H. S., & Riggio, R. (1981). The effec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nonverbal expressiveness on transmission of emotion.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6*, 96-104.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Furman, W., & Robbins, P. (1985). What's the point: Issues in the selection of treatment objectives. In B. H. Schneider, K. H. Rubin, & J. E. Ledingham (Eds.), *Children's peer relations: Issues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p. 41-56). New York: springer-verlag.
- Gault, B. A., & Sabini, J. (2000). The roles of empathy, anger, and gender in predicting attitudes toward punitive, reparative, and preventative public policies. *Cognition and Emotion, 14*(4), 495-520.
- Gottman, J. M., & Levenson, R. W. (1998). What predicts change in marital interaction over time. *Family Process, 38*, 143-158.
- Gribble, J., & Oliver, G. (1973). Empathy and education.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8*, 3-29.
- Gross, M. W., & Siperstein, G. N. (1997).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learning problems. *Exceptional Children, 63*(2), 183-193.
- Halberstadt, A. G., Cassidy, J., Shifter, C., Parke, R., & Fox, N.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Hoffman, M. L. (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pp. 218-313). New York: Academic Press.
-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
- Knapp, M. L. (1984).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human relationship*. Boston: Allyn & Bacon.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34-949.
- Lieberman, M. D., Eisenberger, N. I., Crockett, M. J., Tom, S. M., Pfeifer, J. H., & Way, B. M. (2007). Putting feelings into words: Affect labeling disrupts amygdala activity to affective stimuli. *Psychological Science*, *18*, 421-428.
- Lipps, T. (1903). Einfühlung, innere nachahmung und organenempfindung. *Archiv Fur die Gesamte Psychologie*, *1*(2), 185-204.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pp.3-31). New York: Basic Books.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ndolia, M., & Kleck, R. E. (1993). Effects of talking about a stressful event on arousal: Does what we talk about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2), 283-292.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Piaget, J., & Inhelder, B. (1969). *The psychology of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s.
- Redmond, M. V. (1989). The function of empathy in human relations. *Human*

- Relations*, 42(7), 593-605.
- Riggio, R., & Friedman, H. S. (1982). The interrelationships of self-monitoring factors, personality traits, and nonverbal social skill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7, 33-45.
-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Vol. 3: Formulations of the person and the social context*. New York: McGraw Hill.
- Rogers, C. R. (1975). Empathy: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 2-10.
- Salovey, P., Brackett, M. A., & Mayer, J. D. (2004). *Emotional intelligence: Key readings on the mayer and salovey model*. Port Chester, New York: Dude Press.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Sroufe, L. A., Schork, E., Motti, E., Lawroski, L., & LaFrenire, P. (1984). The role of affect in emerging social competence. In C. Izard, J. Kagan, & Zajonc (Eds.),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pp.289-31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llins, E. S. (1989). Perceptual salience as a function of nonverbal expressiv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4), 584-595.
- Titchner, E. (1909). *Experimental psychology of the thought processes*. New York: Macmillan.
- Woodward, L. J., & Fergusson, D. M. (1999). Childhood peer relationship problem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1), 87-104.

## ABSTRACT

###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pressiveness on empathy in middle school student and the quality of their peer relationships

Kang, Yusun\* · Park, Kyung\*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by middle school Students-upon the quality of their peer relationships.

In addition, this study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between empathy and the quality of those peer relationships.

By examining the variables between the empathy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the authors attempted to provide some basic information for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individuals who are suffering from negative peer relationships.

Therefore, in this study, by considering the variables between empathy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nd by organizing these systematically, the authors tried to better understand the broad picture when it comes to the subject of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Key Words : middle school student's, empathy,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emotional expressiveness

투고일 : 2013. 9. 9, 심사일 : 2013. 11. 18, 심사완료일 : 2013. 12. 2

---

\* Seoul Women's Univ.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Therapeutic Technology